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발행인 정우식 / 편집인 이미영 / 발행일 2021년 10월 19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010-2050-0650 (fax 227-0650)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2021년

10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겸손(謙遜)의 지혜를 배우며...



원장 남 상 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번째 가을을 맞이했는데도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회원님들은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학교 현장에서도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도록 겸손한 자세로 방역에 협조하며,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지난 9월 초에 전북지역 초중고 교원 422명(교사 337명, 교감·교장 85명)을 대상으로 질문 항목 12개를 선정하여 전북교육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13일에 설문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전북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문제 심각하다.”는 내용을 크게 다루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247명(58.5%)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보통이다 158명(37.4%), 심각하지 않다는 17명(4%)이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엔 147명(34.8%)이 참학력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 확충과 방과 후 1:1 맞춤형 수업 강화가 각각 22.7%, 22.3%를 차지해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요즘 정치와 부동산 문제로 시끄러운 시국에 교육자로서 고전을 접하며 겸손의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주역에는 겸손(謙遜)을 가리키는 지산겸(地山兼) 괘가 나옵니다.

첫째는 달도 차면 기운다는 법입니다. 소유함이 성대하여 가득함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하고, 반드시 낮추고 떨어내는 데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땅은 낮음을 나타내고 산은 높음을 나타내는데 산이 땅 아래 있음은 겸의 상(象)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숭고한 덕으로 낮은 곳에 처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자님 말씀도 “군자는 이를 보고 많은 것을 덜어서 적은 데에 더해서 물건을 저울질 하며 베풀을 공평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단순히 남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자기에 등을 일으키는 ‘나의 의식 자체’를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겸손한 군자는 낮은 자세로 자신을 길러 나간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많기에 더 배워야 한다는 자세가 겸손으로 이어지고, 겸손은 삶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성장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원도 더 배워야 한다는 겸손의 자세로 계속 성장해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글 심는순서

- | | |
|--|---------------------------|
| 02 인사말 - 겸손(謙遜)의 지혜를 배우며... | 소식, 여섯 - ‘친구야, 우리 영화 만들자’ |
| 03 소식, 하나 - 웅장한 전북 고대사, 전북 가야를 가다. | 06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 소식, 둘 - 9월 교육이야기마당, 전북 고대사의 진실을 마주하다. | 10 [9월 교육이야기마당 강연 내용 요약] |
| 04 소식, 셋 - 전북 교원들, 학생들 기초학력 심각하다 인식 | 전북, 동철서염(東鐵西鹽) 큰 무대였다 |
| 소식, 넷 - “함열향교의 3락(樂)” 체험 연수 참여 | 13 교단일기 -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
| 05 소식, 다섯 - 신석정 시인 엮집 《비사벌 초사(草舍)》 보존하기로 | 15 [고전의 향기] - 문채병 |
| | 16 회원동정, 교육정책 세미나 안내 |

웅장한 전북 고대사, 전북 가야를 가다.

— 자랑스러운 전북 역사, 널리 알리고픈 역사를 이제야 만나다. —

“와! ~~~”

모두들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아, 이제야 이곳을 찾다니!”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내지른 탄식과 탄성, 그동안의 무지와 무관심을 반성하는 부끄럽고 죄스런 마음 섞인 탄성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터져 나왔다.

전북 가야는 실로 장엄하게 우리 앞에 서 있었다.

우리 문화원 향토역사문화 걷기 동아리는 10월 11일 (월) 한글날 대체휴일에 전북 가야 답사를 떠났다. 주로 왕릉급 고총을 돌아보자 했다. 얼마 전 진행한 9월 교육이야기마당 강연의 실제 무대를 눈으로 확인하며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40여 년 동안 가야 연구에 몰두하며 전북 가야의 산과 역할을 해온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 곽장근 교수를 가이드로 모시고 떠나는 답사라서 가슴은 더욱 설레었다. 내내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지만 역사의 벽찬 숨결에 마음 먼저 흠뻑 젖어 있었기에 비 따위는 걸림돌이 될 리 없었다.

맨 먼저, 국가 사적인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을 찾았다. 마을 이름마저 예사롭지 않은 성내마을. 소박한 홍보관에 들러 교수님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첫 고분을 마주하는 순간 숨이 떡 멎었다. 야트막한 마을 뒷산은 온통 고분들로 가득했다. 복원해서 잔디를 입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봉분 위에 나무가 나 있는 자연 그대로인 채였다. 그것만으로도 감동은 충분했다.

인원에서 맛있는 한식뷔페로 점심을 한 뒤 장수로 이동하였다.

장수 답사는 먼저 ‘장수 가야 홍보관’에 들러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걸로 시작하였다. 역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동춘리 고분군을 둘러보았다. 말끔히 단장된 고분은 아직 없었지만 90여기에 이른다는 밀집도와 엄청난 규모만으로도 특별한 느낌이 가득했다.

답사는 삼봉리 고분군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잘 복원해놓은 거대한 쌍릉 두 쌍이 우리를 포근히 품어 준다. 일행은 이구동성으로 경주 대릉원까지 갈 필요 없겠다며, 우리 전북의 아이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키워줄 위대한 역사 현장이니 널리 알려야겠다고 다짐하며 일정을 마쳤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소중한 전북 가야를, 철저히 짓밟히고 지워졌던 역사를, 외롭게 헌신하며 1,500여 년 만에 어두운 땅 속에서 끄집어내 복원해가고 있는 학자 곽장근 교수님께 참가자들은 강연과 답사를 진행하는 내내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임하였다. 그 또한 감동이었다.



9월 교육이야기마당, 전북 고대사의 진실을 마주하다.

“전북, 동철서염(東鐵西鹽) 큰 무대였다.” 주제로

— 곽장근 교수(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 초청 강연 —

9월 29일(수),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교육이야기마당을 열었다. 참가 인원을 선착순으로 제한하여 진행하였다.

강연은 열띤 공감과 호응 속에서 3시간 넘게 이어졌다.

(강연 내용 요약 10~13면 참조)



전북 교원들, 학생들 기초학력 심각하다 인식

— 미래교육역량으로 소통능력 · 협동성 기르는 인성교육 꿈아 —

본원 전북지역교육연구소(대표 이미영)는 지난 9월 2일~10일까지 9일간 전북지역 초 · 중 · 고 교원 422명[교사:337명(79.9%), 교장 · 교감:85명(20.1%)]을 대상으로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소는 설문조사 결과를 9월 13일 발표해 방송, 신문 등 도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동안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전북교육의 정책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온 바 있는 분야인 민주적인 교육행정, 교육청 · 학교와 지자체 · 지역사회의 소통 협력, 기초학력 향상, 소규모농어촌학교 활성화, 진로교육 활성화, 미래교육역량 육성, 전북교육발전 과제 등을 묻는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전북지역교육연구소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10월 20일에 사)교육종합연구원과 공동으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 결과 6~9면 참조)

“함열향교의 3락(樂)” 체험 연수 참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 회원 10여 명은 8월 5일,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사장 강윤희)이 주최하는 ‘함열향교의 3락’ 체험 연수에 참여,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오전 10시 함열향교에 도착해서 홍살문 앞에서 전교님과 기념사진을 찍고, 이양몽 추진위원장님의 안내와 해설을 들으며 함열향교 및 마을을 1시간 동안 둘러보았다. 익산시 함라면 함열리에 위치한 함열향교는 1437년(세종19)에 창건되어 대성전, 영소전, 명륜당, 동재, 서재, 난심재, 교직사 등이 있다. 영소전에 공자 영정을 모시고 있는 점이 특별했다. 함열향교 앞마을에는 유명한 삼부자 집(김병순 가옥, 조해영 가옥, 이배원 가옥) 고택과 돌담길, 한옥체험관 등이 넓게 자리하고 있어 아름다운 전통마을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향교와 마을 답사를 마치고 향교 충효관에서 문채병 선생님(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의 ‘直道人的 미움과 姦仁의 虛名’ 주제의 논어 특강을 들었다. 문채병 선생님은 “仁者는 미워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直道人)이며, 이익을 위한 명예추구형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정당한 미움을 불사하는 직도인이 좋은 사람이다.”고 공자는 말했다며 仁者를 설명하였다.

점심시간에는 동태탕으로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생태적 일상 만들기’ 체험행사에 참여하였다. 김선숙 강사의 기후변화와 환경생태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듣고, 천연 모기퇴치제, 선크림, 버물리 3종을 만들었다. 역시 가장 활기찬 시간은 처음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었다.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 강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서 해보니 훌륭한 천연 제품이 탄생하였다.

폭염과 코로나 국면 속에서 소규모만 참여해야 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지만, 아이행복 집행부의 수고로 더위도 잊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신석정 시인 옛집 《비사벌 초사(草舍)》 보존하기로

— 신성하 이사는 대책위원장, 정우식 이사장은 공동대표로 활약 —

전주시 병무청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헐릴 위기에 처했던 신석정 시인의 옛집 비사벌 초사가 철거 위기에 서 벗어났다. 전주시는 이 구역을 재개발사업에서 제외하여 비사벌 초사를 원형 보전할 것임은 물론 문학관 건립과 기림 공간 조성 등 추가 계획까지 공표하였다.

《비사벌 초사(草舍)》는 시인(1907~1974)이 고향 부안에서 전주로 옮긴 뒤, 1961년경부터 74년 돌아가실 때까지 지내신 집이다. 집 이름도 직접 지으셨다. 2018년에 ‘전주시 미래유산 14호’로 지정되었다.

《비사벌 초사》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7월경 문인단체와 각계를 망라한 ‘비사벌 초사 보존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와 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펼쳐왔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신성하 이사가 대책위원장을, 정우식 이사장이 공동대표를 맡는 등 대책위원회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해왔다. 대책위는 앞으로 이 지역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시인의 마을로 조성하고, 신석정 시인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여 활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신석정 시인은 목가적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도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단 한 편의 친일시도 남기지 않았으며, 독재치하에서도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았다. 전주고, 김제고에서 교사를 하였고, 1972년 전주상고(현 전주제일고)에서 정년 퇴임하셨다. 전북대와 영생대(전주대 전신)에서 강의도 하셨다. 시인의 삶에서 전주 노송동 일원을 떼어놓고서는 말하기 어렵다.

《비사벌 초사》는 신석정 시인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한 곳이며, 부안 집에서 직접 옮겨와 심고 가꾼 꽃과 나무들이 시인의 숨결을 오롯이 품고 있는 거룩한 시인의 정원이다.

2021년 9월 1일자 한겨레신문 기고 이병초 시인(전북작가회의 회장)의 글 “신석정의 비사벌초사를 지켜 주시라.”를 꼭 한 번 찾아 읽으시기를 권한다.



‘친구야, 우리 영화 만들자’

— 순창동계중고 학생 제작 영화 시사회 참관 —

지난 2021. 8. 20.(금) 오후 2시, 순창 작은영화관에서 열린 영화시사회에 우리 문화원 정우식 이사장, 이미영 이사가 참석하였다. 영화시사회에서는 동계중 학생들이 만든 ‘무슨 일이 있나 봐(8분)’, 동계고 학생들이 만든 ‘학교 탈출’(11분) 두 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영화는 순창동계중고 전교생 40명이 기말고사가 끝난 여름 방학 전 2주간 ‘배우’는 물론 감독, 촬영, 소품, 분장 등 전 분야에 참여, 여균동 총감독과 함께 작업하고 만들었다고 한다. 영화는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 영화제작자의 땀방울로 이룬 기적의 선물이었다.

영화 제작 과정은 사회적협동조합인 《우리 영화 만들자》(대표 김영연)에서 교육과 지원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든 영화가 탄생하기를 소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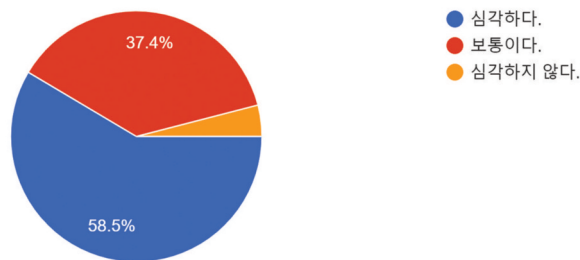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편집자 주】 전북지역교육연구소, 2021. 9. 2~9,10.(9일간), 전북 초·중·고 교원 422명[교사 : 337명(79.9%), 교장·교감 : 85명(20.1%)] 대상 실시

1) 도내 교원들 대다수는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58.5%)고 응답하였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시급한 정책으로 ‘참학력, 성장평가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34.8%)을 가장 높게 꼽아 도교육청이 현재 시행중인 참학력, 성장평가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의 관심 확충’(22.7%), ‘방과후 1:1 맞춤형 수업 강화’(22.3%)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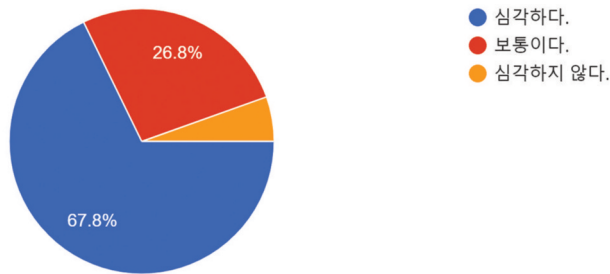
2) 도내 교원들은 미래교육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에게 시급한 교육으로 ‘소통능력, 협동성 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53.1%), 독서 및 다양한 체험교육(20.4%), ‘미래사회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이해교육’(12.8%)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청,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을 모색하는 정책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교육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3) 도내 교원들은 소규모 농어촌학교 현실에 대해 대다수가 ‘심각하다’(67.8%)고 응답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으로 ‘인근 도시학교와 연계한 어울림학교 확대’(36.5%), ‘도시-농촌 학교 교류학습 지원하는 행, 재정적 지원’(27.3%), ‘초-중 통합학교를 통한 다학년제 운영’(23.9%), ‘산촌유학시설 지원’(6.4%) 순으로 응답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적정규모 학교통폐합’ ‘마을거주 교사 우대’ 의견도 있었다.

- 현재 전북의 소규모 농어촌학교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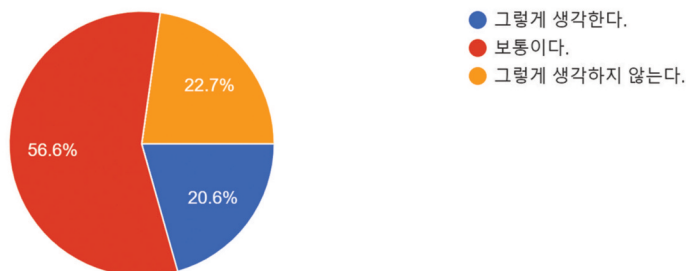


- 소규모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4) 도내 교원들은 전북교육행정에서 소통과 협력이 원활한 교육행정이 잘 구현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56.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22.7%)로 응답했다. 민주적인 교육 행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39.1%), ‘공문 처리 중심의 업무 과중’(36.5%) 순으로 응답, 교육청의 현장중심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 교육행정에서 소통과 협력이 원활한 민주적인 교육행정이 잘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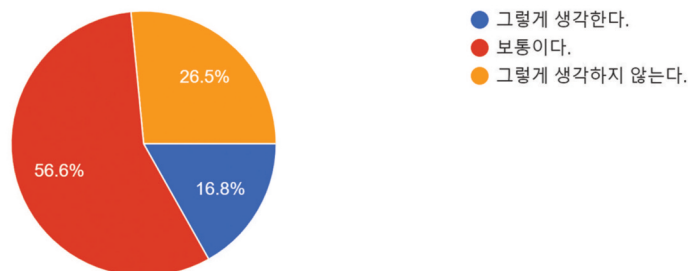


-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5) 도내 교원들은 현재 진로(진학,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보통이다’(56.6%),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26.5)로 응답해 진로교육 활성화 대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의 지역사회, 대학, 지자체, 기업체 등과의 협력 강화’(36.7%),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활성화하여 학교 지원 강화’(34.4%)를 꼽아 교육청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협력과 진로진학상담센터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진로(진학,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청의 행정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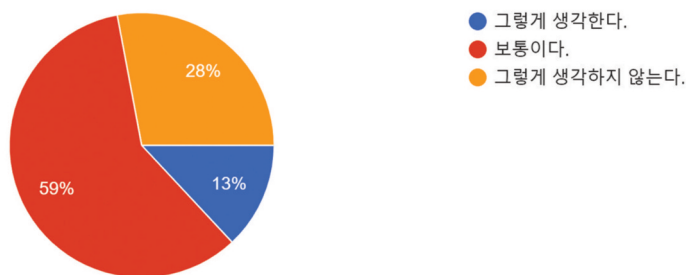


-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6) 도내 교원들은 현재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보통이다’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87%)로 응답했다. 지역교육(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행정으로는 ‘지자체,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교육’(31.8%), ‘지역사회전문가, 지역사회 담당 교사의 배치와 전문성 확보’(27.7%), ‘교육 행정가들의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소통노력’(26.8%)순이었다.

- 현재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 지역교육(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7) 도내 교원들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41%),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25.8%), ‘교사의 교육권(수업권, 평가권) 강화’(24.2%) 순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부의 정책과 더불어 도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과 행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422개



전북, 동철서염(東鐵西鹽) 큰 무대였다

곽장근 교수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장)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안내서 ‘산경표’에 실린 15개의 산줄기 중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 산줄기가 전북을 종횡(縱橫)한다. 전북은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이 동쪽 산간지대와 서쪽 평야지대로 갈라놓아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자연 지형을 이룬다.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이 동쪽에, 호남평야가 서쪽에 위치한다. 금강과 남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인천강이 전북을 넉넉하고 풍요롭게 적셔준다.

금강, 만경강, 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곳에 군산도(群山島)가 위치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연안항로와 횡단항로, 사단항로가 군산도를 경유하여 줄곧 해상교통 교차로이자 기항지를 이루었다. 군산도를 중심으로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를 새만금으로 설정했는데, 선사시대부터 내륙 문화와 해양문화가 새만금에서 하나로 응축됐다. 새만금은 해양문물교류 허브로서 철기문화, 도자문화 등 선진문물이 바닷길로 전북에 곧장 전래되는데 큰 관문 역할을 전담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공헌도가 높은 것이 소금과 철이다. 한나라 무제가 제정하여 시행한 소금과 철의 전매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염철론(鹽鐵論)이다. 전북은 염철론의 큰 무대였다. 전북 서부지역에서 소금과 동부지역에서 철이 생산됐는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전북을 동철서염(東鐵西鹽)으로 피력하려고 한다. 초기철기시대부터 후백제까지 내내 전북에서 생산된 소금과 철이 전북에 지역적 기반을 둔 마한·백제·가야·후백제가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전북 철기문화 바닷길로 왔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田橫)이 군산 어청도로 망명해 왔는데, 그를 모신 사당 치동묘(淄東廟)가 어청도에 있다. 여기서 치동묘는 제나라 도읍 임치(臨淄) 동쪽에 위치한 사당이라는 뜻이다. 충남 보령 외연도에도 전횡장군 사당이 있는데, 해마다 음력 2월 14일 외연도 당제에서 풍어의 신으로 전횡을 제사지낸다.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도에도 전횡을 모신 사당이 있었는데, 전횡이 쓴 것으로 전하는 칼이 사당에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중국 산둥반도에 기반을 둔 제나라는 발해만의 소금생산과 태항산의 철산개발에 근거를 두고 동염서철(東鹽西鐵)로 회자된다. 1975년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에서 나온 26점의 중국식 동검이 교역보다 망명객에 의해 제작됐는데, 중국 산둥성 출토품과 유물의 속성이 가장 흡사하다. 오직 완주 상림리 출토품이 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국식 동검은 제나라 전횡이 군산 어청도·비응도를 거쳐 바닷길로 전북혁신도시에 정착했음을 뒷받침해주는 고고학적 증거물이다.

춘추 오패이자 전국 칠웅 중 최강국 제나라의 동염서철이 전북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이다. 사실 해양에 아는 것이나 지식이 없는 필자로서는 궁금증이 적지 않았다. 모두 네 번의 뗏목 탐험으로 한국 해양사를 개척한 윤명철 교수는 양 지역의 자연 필연성을 조언해주었다. 일본 열도 남안을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를 이용하면 전횡의 어청도로 망명 개연성은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중국 산둥박물관과 산둥대학교 박물관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완주 상림리 출토품을 꼭 빼닮은 중국식 동검을 보고 일순간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나라 전횡이 망명하고 8년 뒤 또 다른 왕이 전북으로 들어왔다. 기원전 194년 고조선(古朝鮮) 마지막 왕 준왕(準王)이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긴 뒤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새로운 땅을 찾았는데, 당시 준

왕이 상륙한 곳이 나리포(羅里浦)라고 한다. 금강 하구 으뜸 포구 나리포는 그 부근에 익산 입점리·옹포리 고분군이 있다.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공주산을 중심으로 어래산성과 도청산성, 관원산성, 용천산성에 준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넉넉하다.

예부터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준왕은 산을 넘어 익산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당시 준왕의 딸 공주가 머물렀던 산을 공주산이라고 불렀고, 준왕이 공주를 데리러 왔다고 해서 공주산 앞쪽 산을 어래산이라고 부른다. 금강 하구 나리포로 내려 온 준왕은 익산시 일대에 최고의 청동문화를 꽃피웠다. 모악산과 미륵산 사이 만경강 유역 전북혁신도시에 전횡 일행이, 익산시 일대에 고조선 준왕이 정착했던 것 같다.

일본에서 농경의 신과 학문의 신, 의학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이 제나라 방사(方士) 서복(徐福)이다.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새만금, 제주도를 거쳐 일본에 정착했다. 진나라 서복의 불로초탐사, 제나라 전횡의 망명, 고조선 멸망 이후 준왕의 남래(南來)로 당시 중국 및 고조선의 선진문물이 바닷길을 통해 곧장 만경강 유역으로 전래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열려있고, 새만금 바닷길로 선진문물이 전래됐음을 알 수 있다.

전북혁신도시 테크노밸리였다

초기철기시대 전북혁신도시가 테크노밸리로 급성장하면서 급기야 만경강 유역이 새로운 초기철기문화의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만경강 유역이 당시 테크노밸리로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제나라 전횡의 망명, 고조선 준왕의 남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하여 만경강 유역에서 거친무늬거울[粗紋鏡]이 잔무늬거울[細紋鏡]으로 바뀌었고, 전북혁신도시에서 만든 잔무늬거울이 전국에 널리 유통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철기문화의 전래로 별안간 패총(貝塚)의 규모가 커진다. 고고학에서는 패총을 해양활동의 백미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학계에 보고된 600여 개소의 패총 중 200여 개소가 새만금 일대에 산재해 있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패각의 분포 범위가 100m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새만금이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교역네트워크로 해양문화를 융성시킨 해양세력이 존재했음을 유적과 유물로 입증했다.

마한의 거점세력은 해양세력으로 알려졌는데, 마한의 말무덤과 패총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새만금이다. 말무덤은 말이 마(馬)의 뜻으로 보고, 말은 머리 혹은 크다 뜻으로 우두머리에게 붙여진 관형사로, 그 피장자는 마한의 지배층으로 밝혀졌다. 엄밀히 말하면 말무덤은 마한의 왕 무덤이다. 새만금 해양문화가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금의 생산과 유통일 것이다. 당시의 소금 생산은 자염(煮鹽)이 아닌 토판천일염(土板天日鹽)으로 추측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해안은 토판천일염과 관련하여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었다. 옛 환경을 복원해 보면 해발 7m 내외까지 바닷물이 드나들었던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익산 왕궁리 유적과 전북혁신도시 부근까지 조수(潮水)가 유통됐음을 알 수 있다. 혹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 전북 서해는 거의 대부분 갯벌 밭이 된다. 그렇게 되면 흙으로 바닥을 다지고 바닷물을 가두어 놓고 햇볕과 바람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토판천일염이 충분하다.

전북혁신도시에서 초기철기문화의 시작이 경기도, 충청도보다 꽤 앞선다. 여태까지 큰 지지를 받았던 철기문화가 육로(陸路)보다 바닷길로 곧장 전북으로 전래됐음을 말해준다. 전북혁신도시 등 만경강 유역에 꽃피웠던 초기철기문화가 동철서염의 기폭제가 됐다. 초기철기시대 전북혁신도시를 첨단산업단지로 일군 선진세력이 100년 뒤 이동을 감행했는데, 전북 동부지역에서 그 단서가 포착됐다.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와 지리산 달궁계곡으로, 모두 다 니켈 철광석 산지이다.

백두대간 품속 전북 가야 융성하다

전북 장수군을 중심으로 한 7개 시군과 충남 금산군에서 학계에 보고된 가야 봉화망에 근거를 전북 가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다. 전북 가야는 가야의 지배자 무덤으로 알려진 가야 중대형 고총 420여 기, 햇불로 신호를 주고받던 120여 개소의 봉화(烽火)로 상징된다. 삼국시대 봉화망으로 복원된 전북 가야의 영역에서만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학계에 보고됐는데, 이제 막 전북 동부지역 제철유적의 운영시기와 운영주체를 밝히기 위한 학술발굴이 시작됐다.

우리나라에서 철산지는 대부분 거점지역으로 발돋움했고, 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고대국가를 출현시켰다. 전북 가야와 백제의 문물교류도 철의 생산과 유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운봉고원과 진안고원에서 가야와 백제, 신라가 국운을 걸고 제철유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삼국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철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북 가야의 정치 중심지는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내 장수군이다. 운봉고원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가야 왕국 기문국(己汶國)은 4세기 후엽 늦은 시기에 처음 등장해 6세기 초엽 이른 시기까지 존속했다. 백두대간 산줄기가 운봉고원을 난공불락의 요새지로 만들었고, 백제와 가야 문물교류의 큰 관문을 이루었다. 당시 대규모 철산개발과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교역망을 통한 철의 생산과 유통이 기문국 발전의 화수분으로 작용했다. 운봉고원은 철광석의 제련부터 주조기술까지 하나로 응축된 철의 테크노밸리였다.

운봉고원 일대에 180여 기의 말무덤과 가야 중대형 고총, 금동신발[金銅飾履]·수대경(獸帶鏡)·계수호(鷄首壺)·철제초두(鐵製#37902;斗) 등 위세품이 출토됨으로써 기문국의 존재를 유적과 유물로 뒷받침해 주었다. 백제를 비롯하여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등이 운봉고원에서 생산된 최고의 니켈 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위세품과 토기류를 기문국으로 보냈다. 최고급 위세품과 최상급 토기류는 기문국이 역동적으로 펼친 철 물물교환의 증거물이다. 그러다가 6세기 초엽 이른 시기 백제의 가야 진출로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됐다.

백두대간 서쪽 금강 최상류 장수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반파국[伴波(叛波)國]은 4세기 말엽 처음 등장해 가야 소국으로 성장하다가 6세기 초엽 경 백제에 의해 멸망했다. 반파국의 위치 비정과 관련하여 함양·운봉설, 고령설, 성주설 등이 더 있다. 장수설의 경우만 문헌의 내용을 유적과 유물로 유일하게 증명해 주었다. 가야사 국정과제로 10여 개소의 가야 봉화대 학술발굴을 통해 그 운영주체가 반파국으로 파악됐다.

가야 영역에서 철기문화가 처음 시작된 장수 남양리가 반파국 영역에 위치한다. 반파국 영역에서 160여 개소의 제철유적도 그 존재를 드러냈다. 금남호남정맥 산줄기가 백제의 동쪽 진출을 막았고, 사통팔달했던 교역망의 장악, 대규모 구리 및 철산개발이 반파국 국력의 원천으로 작용했다. 장수 노곡리·장계리·호덕리 말무덤, 즉 마한의 분구묘가 지속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240여 기의 가야 중대형 고총이 진안고원의 장수군에서만 발견됐다.

반파국 가야 고총에서 나온 단야구(鍛冶具)와 말편자는 철의 생산부터 가공기술까지 담아낸 첨단기술의 집약체이다. 금강 최상류에서 가야 문화를 당당히 꽃피웠던 반파국은 200여 개소의 제철유적과 관련된 철의 왕국으로 추정된다. 전북 가야의 영역에 120개소의 봉화를 남긴 봉화 왕국이자 1500년 전 ICT왕국이다. 동시에 백두대간 산줄기 서쪽 금강 최상류에서 가야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유일한 가야 왕국이다. 중국 및 일본 문헌에 이름을 모두 올린 반파국은 참된 봉화 왕국이다.

전북 동부 철기문화 꽃피우다

전북 동부지역에서 25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그 존재를 드러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운봉고원과 진안고원, 만경강 유역에 속한 완주군 동북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도 제철유적을 찾고 알리는 정밀 지표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반파국과 기문국은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南征) 이후 가야 문화를 받아들여 가야 소국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에서 서로 공통성을 보였다. 백두대간 품속 가야 소국들로 유적과 유물로 서로 돈독한 우호관계도 명약관화하게 고증됐다.

백두대간 동쪽 운봉고원에 큰 관심을 두었던 근초고왕과 무령왕, 무왕은 당시에 백제를 중흥으로 이끌었다. 무엇보다 익산이 무왕 때 백제의 거점으로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운봉고원 대규모 철산지의 탈환이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운봉고원 서북쪽 관문 아막성(阿莫城)에서 백제와 신라의 20여 년 전쟁은 한마디로 철의 전쟁이다. 실상사 철조여래좌상은 운봉고원의 철기문화와 유학승의 신앙심이 하나로 응축되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품이다. 실상사 조개암지 편운화상승탑에 후백제 연호 정개(正開)도 전한다.

전북 가야의 멸망 이후 섬진강 유역에 속한 남원(南原)이 철의 집산지로 급부상했다. 당시 국가차원의 철산개발로 사비기 백제 남방성이 남원 척문리·초촌리 일대에 들어섰고, 통일신라 때 남원경(南原京)으로 승격된 뒤 후백제까지 255년 동안 전북 동부지역의 위상을 최고로 주도했다. 전북의 ‘동철서염’을 국가시스템으로 완성한 후백제는 중국 청자의 고향 오월(吳越)과 반세기 동안 돈독한 국제외교를 펼쳤다. 진안 도토리 청자 요지 내 1호 벽돌가마는 선해무리굽과 중국식 해무리굽으로 상징되어 그 운영주체를 후백제로 비정했다.

초기 철기시대부터 전북 가야를 거쳐 후백제까지 1,000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어진 전북의 동철서염(東鐵西鹽)이 전북을 줄곧 염철론(鹽鐵論)의 거점으로 선도했다. 전북 가야와 백제가 동철서염의 밑바탕을 구축했고, 후백제 전(진)환왕이 국가시스템으로 완성했다. 전북의 유적에서 전북 가야와 백제, 후백제를 함께 만날 수 있는데, 전북 가야와 백제가 처음 터를 닦고 후백제가 다시 국력을 쏟아 중건했기 때문이다. 후백제는 전북의 고대문화와 동철서염의 화룡점정(畫龍點睛)이다. 전북의 고대문화는 동북아 문물교류 허브로서 달리 역동성·다양성·국제성으로 응변되는 전북의 자긍심이자 뿌리이자 값진 문화유산이다.

[교단일기]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 영화캠프 후기 —

양경자 (회원, 동계고 교사)

“왜 우리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화캠프 하기로 하셨어요?”

“모든 교육과정을 너희들의 의견을 꼭 물어야 하는 것은 아냐. 샘들이 너희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거야.”

“그래도 하기 싫은데요.”

교무회의에서 수차례 논의 끝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화캠프를 하기로 결정한 그동안의 노력도 무색하게 비판의식이 남다른 우리 아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올해 초 혁신더하기 학교 준비 워크숍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고 다짐했다. 영화캠프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는 활동으로 ‘교육적 의미’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기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캠프가 시작되었다.

영화캠프 기간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보건실 들락거리던 아이들이 점차 횡수가 줄어들고 조퇴하던 아이들이 하루 온 종일 학교에 있는 걸 즐겨 하였다. 아침에 코로나 방역차 체온계를 들이대다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엔 오늘 하루 활동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가득해 보였다.

처음에 소극적이던 아이들이 점차 영화수업 속으로 ‘스며’들었다. 주말 수업에 광주나 전주에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숙소에는 처음에는 4명만 지원했으나 순창, 동계지역 아이들까지 합세하여 14명이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친구들과, 선배들과 우정의 밤을 함께 지새웠다. 몇 명 되지 않은 반에서 평소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내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며 친해졌고, 친구들과 놀 때 가장 행복하다는 아이, 그런데 친구가 없어 하루 종일 혼자 만화만 그렸던 아이는 선배들과 활동을 하며 얼굴가득 환한 미소를 띠며 샘의 허리를 껴안는다.

2주간의 영화캠프가 막을 내렸다. 내부 시사회를 통해 아이들이 서투르게 편집한 영화 4편도 감상했다. 솔직히 남량특집을 겨냥한 호로영화이지만 주제의식이나 배우들의 연기도 시원치 않아 보인다. ‘호로 빼급’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대했던 ‘교육적인 의미’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영화캠프기간 아이들의 활동과정을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교과 수업활동이나 친구관계에서 소극적이었던 아이들, 자의든 타의든 소외되었던 아이들이 영화수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오디션에 지원하고 배우로 활동하기도 한 점이다.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을까.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고 역할을 나눠 작품을 만들어 가는 목표가 분명한 학생중심활동과, 매일 매일 활동을 평가하고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학생 한 명 한 명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했던 스태프들의 노력, 교육을 맡은 강사진들의 최고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배울 지점이다.

또 다른 변화는 학년별로 학생 수가 많지 않아 항상 아이들이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아쉬웠는데 중, 고 무학년제로 학년을 뛰어넘어 선배가 활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다. 혼자 다녔던 아이가 후배들과 나란히 서서 얼굴가득 함박웃음 짓고 수다를 떨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활동을 통해 후배는 선배의 진면목을 접할 수 있어 “존경한다.”, “반할 것 같아요.”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선배 또한 후배들 한 명 한 명 챙기고 배려하는 모습이 진정 선배 역할을 할 수 있어 좋아한다. 촬영하는 동안 늦게까지 불평 불만없이 각자 맡은 역할에 열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려만 보였던 아이들이 갑자기 달라 보여 안경을 닦고 다시 보게 된다. 그새 훌쩍 자란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 의욕이 없다.’, ‘모든 일에 소극적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화캠프 활동을 지켜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아이들은 충분히 열정이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과정과, 치밀한 학생활동 중심과정,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지원하고 안내할 교사들의 준비와 인내가 필요하다. 물론 처음부터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을 고려한 지치지 않고 설득할 끈기도 필요하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질까 기대하고 지켜봤지만, 어떤 영화든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다. 어떤 영화를 만들

지 아이디어를 나누며 말도 안 된다며 서로 낄낄거리고, 숙소에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며 게임을 했고, ‘혹시 나도 명배우가 될 소질이 있는 거 아냐’ 생각지도 않던 오디션에 긴장하며 참여하고, 시간은 줄 모르고 늦게까지 남아 촬영하고, 주말에 남아 촬영에 쓸 소품을 만들며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니며, 모듈별로 음악과 영상을 편집하며 그렇게 2주가 훌쩍 지나갔다. 그동안 아이들은 이 모든 활동에 처음과 달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집중했으며, 서로 친해졌고, 그래서 학교에 오는 게 재미있었고, 아프지만 촬영현장을 떠나기 싫었고, 학교는 이상한 흥분과 생기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행복했다. 그거면 됐다. 충분하다.

영화캠프 후 방학 전에 다시 조정한 진로창업 동아리 중 유튜브 동아리는 1학기에 폐지까지 고려했었는데 영화캠프 후 인원이 증가하여 살아남았다.

이제 개학 후 극장 시사회가 남았다. 우리가 함께했던 뜨거웠던 2주간의 여름을 아이들은 각자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배웠을까? 2학기에는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함께했던 열정들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집중하게 할지 그건 우리들의 몫이다. 아이들이 행복했던 그 모습과 기대 가득했던 눈빛, 열정적인 몸짓을 2학기에도 수업 속에서, 모든 활동 속에서 보고 싶다.



[고전의 향기]

문채병 (본원 이사)

必也正名乎 名不正則言不順 言不順則事不成 … 則民無所措手足

(반드시 명칭을 바로잡을 것이다! 명칭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 손발을 둘 곳이 없게 된다.) : 正名論(論語. 子路3장)

반드시 명칭을 바로잡을 것이다! 제자 자로의 “위(衛)나라 임금의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한다면 어떤 일을 먼저 하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공자의 대답이다. 명실상부한 명칭을 부여해야만 비로소 말이 순조롭고, 일이 이루어지며 정치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와 명칭이 서로 상응, 일치하는 정명(正名)이 아니면 정치가 결국 손발까지 웅색케 하는 폐단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어긋난 명칭이 정치를 타락시키고 삶을 피폐화로 내몬다.

듣자 하니 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자칭하면서 추대 운운하는 모양새다. 진보? 말 자체가 얼핏 호소력이 있다. 거추장스럽게 이치를 따질 필요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 쉽게 전파될 수가 있으니 그만이다. 두루뭉술함으로 너도나도 진보 참칭(僭稱)을 허용, 급기야 위명(偉名) 난장판이 조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진보생태계 교란종들이 자가당착으로 진보의 격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떡밥 삼으려 한다. 명칭과 걸맞지 않은 실체 불분명에서 빚어진 말 꼼수 병폐다.

진정한 진보는 외침이나 플래카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기 혁신 없는 고착화는 오늘은 보수요, 내일은 수구가 된다. 소를 타는 데만 습관 되어 자신은 소가 되려 하지 않고 이제 비행기까지 타려고 한다.

교육을 위해 평생 희생한 소에게 ‘진보’가 정명(正名)되어야 온당하다.

회원 동정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조용선(시민)

교육정책 세미나 안내

전북교육 현주소 진단과 발전 방안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각 부문에서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21. 10. 20.(수) 저녁 6시 30분 ~ 8시

◆ 장소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사회 : 정우식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발표 1 전북교육정책 평가 및 대안 (교원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

발표 2 전북교육 진단과 발전 방안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발표 3 농촌학교 현실과 대안

김명희 [계화중 교사]

발표 4 익산 지역교육 사례와 발전 방안

강유희 [사)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 이사장]

종합토론 전북교육 발전 방안, 무엇인가?

주최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사)교육종합연구원

